

제 목: 2013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4월 CBSI 2.5p 상승한 62.8 기록

- 기저효과, 계절적 요인 영향 2개월 연속 상승
4.1대책 및 추경 예산 발표 영향은 제한적 -

- 2013년 4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2.5p 상승한 62.8을 기록함.
 - 이로써 CBSI가 3월(전월비 6.0p 상승)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함. CBSI가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작년 2월과 3월의 연속 상승에 이어 1년 1개월만임.
 - CBSI 2개월 연속 상승에는 지난 2월 CBSI가 30개월만에 최저치(54.3)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3월 이후 건설업 비수기인 흑한기가 끝난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또한, 4.1대책과 4월 초순 발표된 추경 예산(안)도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4월 CBSI 상승 폭이 2.5p에 그친 것을 볼 때 대책들이 당장 4월 건설업 체감경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2개월 연속 상승에도 불구하고 CBSI 수치가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친 60선에 불과하고, 흑한기로 인해 부진했던 1월 CBSI 수치(65.4)에도 못 미친 것을 볼 때 건설업 체감경기는 아직 심각한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

- 한편, 2013년 5월 CBSI 전망치는 4월 실적치 대비 1.6p 상승한 64.4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상승했지만, 상승 폭이 매우 소폭에 불과해 5월에도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개월 연속 CBSI 상승을 견인했던 기저효과와 계절적 요인이 5월에는 대부분 사라진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5월에도 4.1대책 시행과 추경 예산 편성이 건설경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가 전월비 상승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과 동일함.
 - 대형업체 지수는 작년 12월 92.9를 기록한 이후 올 들어 3개월 연속 하락해 3월에는 31개월만에 최저치인 69.2을 기록했는데, 4월 들어서 전월비 소폭(2.2p) 상승한 71.4를 기록함.
 -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2월에 한일건설, 동보주택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18.7p 급락했다가, 3월에는 다시 전월비 18.7p 상승한 66.7을 기록해 1월 수준을 회복했는데, 4월에도 전월과 동일한 66.7을 기록함.
 - 한편,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5.5p 상승한 48.1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소폭 개선됐는데, 지수 자체는 여전히 대형, 중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및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9.3, 97.3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8.8, 81.2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4.8, 80.0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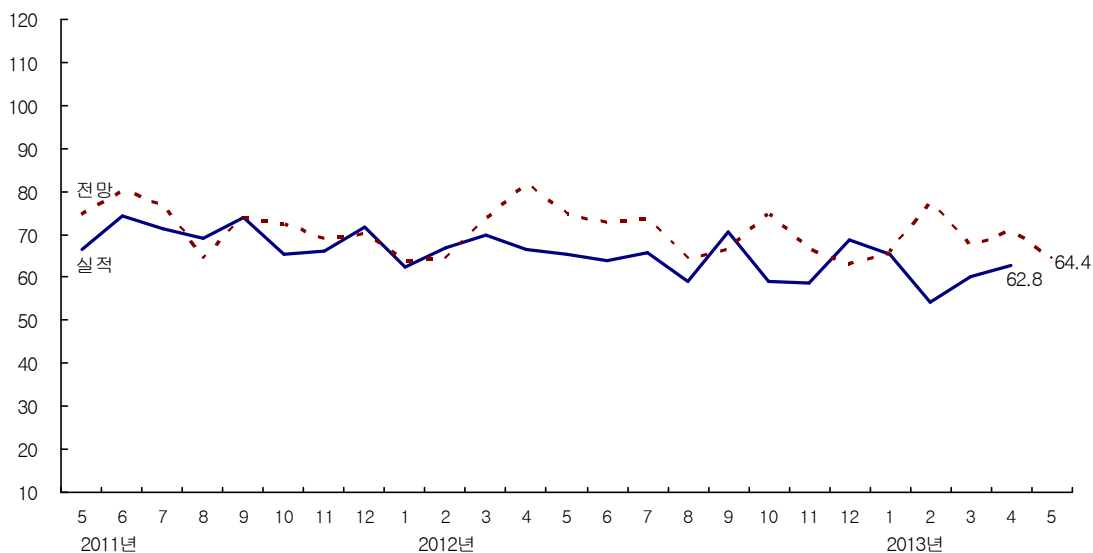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4월 CBSI 2.5p 상승한 62.8 기록. 기저효과, 계절적 요인 영향 상승
4.1대책 및 추경 예산 발표 영향은 제한적

- 2013년 4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2.5p 상승한 62.8을 기록함.
 - － 이로써 CBSI가 3월(전월비 6.0p 상승)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함. CBSI가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작년 2월과 3월의 연속 상승에 이어 1년 1개월만임.
 - － CBSI 2개월 연속 상승에는 지난 2월 CBSI가 30개월만에 최저치(54.3)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3월 이후 건설업 비수기인 흑한기가 끝난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 또한, 4.1대책과 4월 초순 발표된 추경 예산(안)도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4월 CBSI 상승 폭이 2.5p에 그친 것을 볼 때 대책들이 당장 4월 건설업 체감경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개월 연속 상승에도 불구하고 CBSI 수치가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친 60선에 불과하고, 흑한기로 인해 부진했던 1월 CBSI 수치(65.4)에도 못 미친 것을 볼 때 건설업 체감경기는 아직 심각한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소기업체 지수가 전월비 상승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과 동일함.
 - 대형업체 지수는 작년 12월 92.9를 기록한 이후 올 들어 3개월 연속 하락해 3월에는 31개월만에 최저치인 69.2을 기록했는데, 4월 들어서 전월비 소폭(2.2p) 상승한 71.4를 기록함.
 -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2월에 한일건설, 동보주택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18.7p 급락했다가, 3월에는 다시 전월비 18.7p 상승한 66.7을 기록해 1월 수준을 회복했는데, 4월에도 전월과 동일한 66.7을 기록함.
 - 한편, 중소기업체 지수는 전월비 5.5p 상승한 48.1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소폭 개선됐는데, 지수 자체는 여전히 대형, 중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2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3.8	65.7	59.0	70.6	58.9	58.7	68.9	65.4	54.3	60.3	62.8	70.8	64.4	
규모 별	대형	92.9	92.9	80.0	91.7	76.9	78.6	92.9	85.7	72.7	69.2	71.4	76.9	64.3
	중견	50.0	56.0	46.2	61.5	57.7	55.6	64.0	66.7	48.0	66.7	66.7	79.2	66.7
	중소	45.6	44.8	49.1	56.4	39.3	38.9	46.3	40.0	40.0	42.6	48.1	54.0	61.8
지역 별	서울	72.1	79.4	63.8	80.5	69.9	69.6	79.3	76.2	63.6	64.8	66.9	73.1	63.6
	지방	51.0	45.2	51.6	56.5	43.2	42.5	52.1	49.0	41.8	53.6	58.7	69.4	67.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2013년 5월 CBSI 전망치는 4월 실적치 대비 1.6p 상승한 64.4을 기

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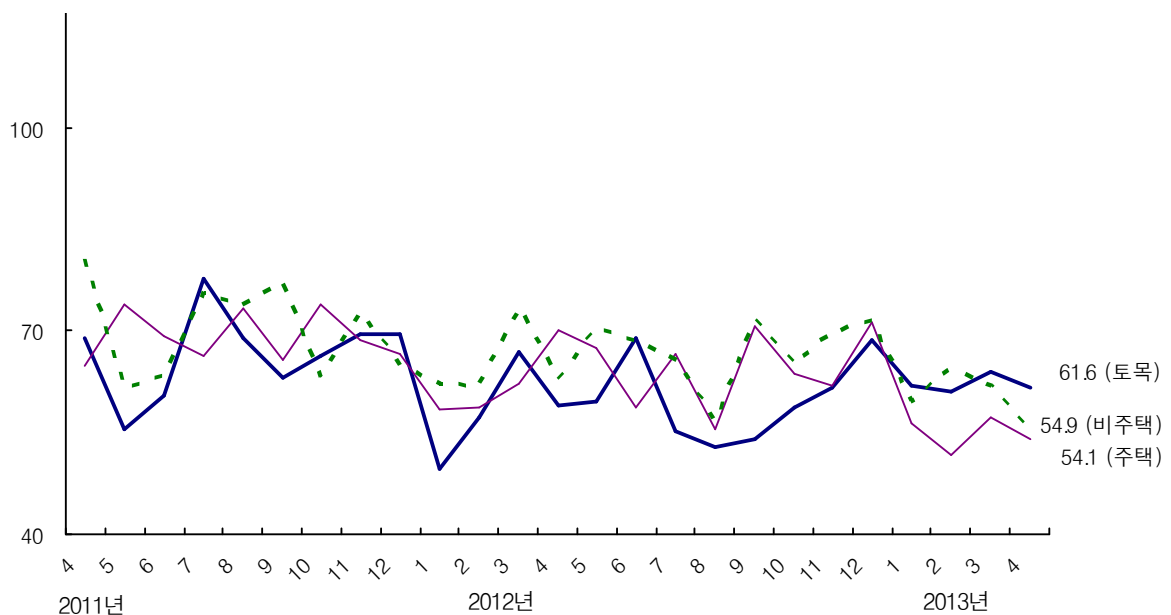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상승했지만, 상승 폭이 매우 소폭에 불과해 5월에도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개월 연속 CBSI 상승을 견인했던 기저효과와 계절적 요인이 5월에는 대부분 사라진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5월에도 4.1대책 시행과 추경 예산 편성이 건설경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지역별로 4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가 전월 대비 2.1p, 지방은 5.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는 전월보다 2.1p 상승한 66.9로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60선에 머물며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서울업체의 상승폭이 다소 미미한 것은 4월 들어서도 서울업체의 물량 상황이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으로 서울업체의 물량 실적 지수는 4월 실적으로는 가장 낮은 61.2에 불과하였음.
 -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5.1p 상승, 지난 3월의 11.8p 증가를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함. 결국 13개월 동안 가장 양호한 수치인 58.7을 기록함.
 - 한편, 2013년 5월 전망치의 경우 서울업체는 4월보다 3.3p 감소한 63.6으로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지방은 8.7p 증가한 67.4로 전망함.

4월 공사 물량지수 4월 지수로는 역대 가장 낮은 59.7 기록

- 2013년 4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7p 증가했으나, 4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저치인 59.7을 기록해 건설업체의 공사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물량지수는 올 1월과 2월 각각 7.8p, 7.0p 감소해 60선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3월에도 1.6p 하락하여 3개월 연속 감소와 함께 7개월간 가장 부진한 58.0을 기록함.
 - － 4월에 통계적 반등 현상과 계절적인 요인으로 1.7p 상승한 59.7을 기록함.
 - － 그러나 지수가 여전히 50선에 불과하고 4월 실적으로는 공사 물량지수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건설업체의 공사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종별로 토목이 61.6을 기록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54.1, 54.9를 기록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비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2월 64.6로 공중별로는 가장 양호했으나, 3월과 4월 각각 전월 대비 2.7p, 7.0p 하락, 결국 지난 2009년 1월 37.6을 기록한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실적인 54.9를 기록함.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3월 전월 대비 5.4p 상승하였으나, 4월 들어 다시 3.1p 감소해 54.1을 기록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 50선에 머뭇.
 - 한편, 토목 물량지수는 3월에는 3.1p 상승한 64.1을 기록하였으나, 4월 들어 다시 2.5p 하락한 61.6을 기록함. 다른 공중에 비해서 전월 대비 감소폭이 낮았으나 60선 초반대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업체 규모별로 대형과 중소기업 물량지수는 지난 3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견업체 지수는 통계적 반등효과로 전월보다 5.1p 상승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4월 지수로는 역대 최저치인 69.2에 불과해 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공중별로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71.4를, 주택이 64.3을 기록함.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지난 3월 54.2로 3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효과로 4월에는 전월 대비 5.1p 증가한 59.3을 기록함. 공중별로 토목이 57.7을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51.9, 50.0으로 모두 50선에 머뭇.
 - 중소기업 물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49.1을 기록함. 토목이 54.5로 공중별로는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택이 44.7, 비주택이 41.2를 각각 기록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59.7	69.2	59.3	49.1	61.2	59.3
	전망	68.1	76.9	63.0	63.6	69.7	67.4
토목	실적	61.6	71.4	57.7	54.5	62.5	62.0
	전망	67.7	78.6	61.5	61.8	69.0	67.4
주택	실적	54.1	64.3	51.9	44.7	55.3	52.6
	전망	64.1	78.6	53.8	58.7	63.5	65.5
비주택	실적	54.9	71.4	50.0	41.2	59.5	50.4
	전망	61.7	78.6	51.9	53.1	67.7	54.7

주 : 실적은 2013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5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 서울업체는 전월 대비 3.6p 증가한 61.2를 지방은 0.8p 증가한 59.3을 각각 기록함.
 -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15.9p, 6.0p 감소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효과로 전월 대비 3.6p 증가한 61.2를 기록함. 비록 전월보다 증가하였어도 4월 실적으로는 역대 가장 낮은 실적으로 여전히 물량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공종별로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62.5, 59.5를 주택이 55.3으로 주택물량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지방업체 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0.8p 증가한 59.3을 기록함. 지난 2011년과 2012년 4월 실적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침체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됨. 토목이 62.0을 주택과 비주택이 52.6, 50.4를 각각 기록해 공종별로는 비주택 물량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5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4월 실적치보다 8.4p 상승한 68.1을 기록함.
 - － 통상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면서 5~10p 정도 상승하는 계절적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 공종별로 토목이 67.7을,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64.1, 61.7로 모두 60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 － 특히, 주택 물량지수의 경우 4월 실적치 보다 10.0p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4.1대책'의 영향으로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 및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및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9.3, 97.3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8.8, 81.2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4.8, 80.0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84.8	107.1	75.0	69.6	90.2	77.0
		전망	84.6	107.1	70.4	74.5	88.5	80.6
	자금조달	실적	80.0	107.1	64.3	66.1	86.2	71.1
		전망	81.2	100.0	74.1	67.3	86.4	75.2
인력	수급	실적	99.3	107.1	100.0	89.3	104.0	92.4
		전망	98.9	107.1	103.7	83.9	105.1	89.7
	인건비	실적	88.8	100.0	92.9	70.9	97.1	76.1
		전망	87.7	100.0	92.6	67.9	96.1	75.2
자재	수급	실적	97.3	100.0	100.0	90.9	97.8	98.3
		전망	99.4	107.1	103.7	85.5	103.0	95.6
	비용	실적	81.2	100.0	82.1	58.2	90.3	67.4
		전망	82.8	100.0	81.5	64.3	93.0	67.4

주 : 실적은 2013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5월 예측지수임.